



WHY LUXEMBOURG?

Ten Good Reasons to choose Luxembourg
룩셈부르크를 선택해야 하는 10가지 이유



1. 유럽의 관문(Your gateway to Europe)



(지리적 이점을 지닌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는 유럽연합(EU) 창설 회원국이자 유로존에 속해 있는 국가로, 주요 유럽 시장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다. 룩셈부르크에서는 비행기로 한 시간이면 유럽연합 GDP의 60%를 차지하는 지역에 도달할 수 있다. 룩셈부르크는 국제 및 유럽 전역에서 활동하는 주요 금융 중심지로, 국제 무역을 위한 법률 및 규제 프레임워크가 잘 갖춰져 있고 유럽연합 법령이 신속히 도입되는 국가이다.

- 세계화 수준 전세계 3위

출처: 2017 KOF 세계화 지수(2017 KOF Index of Globalisation)

2. 기업 친화적 환경(Business Friendly)



룩셈부르크의 공공 기관과 행정 기관은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정치인의 사고 방식이 개방적이고 진취적이어서 룩셈부르크에서 활동을 시작하거나 거점을 옮기려는 기업에 유리하다.

-세계 1위 노동 생산성

(1시간 근로로 발생한 GDP 기준)

출처: 2017 KOF 세계화 지수(2017 KOF Index of Globalization)

3. 안정성 및 신뢰성(Stable and Reliable)

정치적, 경제적 불확실성이 있을 때는 안정적인 사업지를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국제 기업들이 장기적 성장 전망이 좋고 지속적으로 고용을 창출하는 나라인 룩셈부르크를 찾고 있다.

-안정성

모든 신용평가사에서 AAA 등급 책정: 건강한 경제

유럽연합에서 두 번째로 낮은 정부 부채(2016년 기준 GDP의 21%)

출처: 유로스타트(Euros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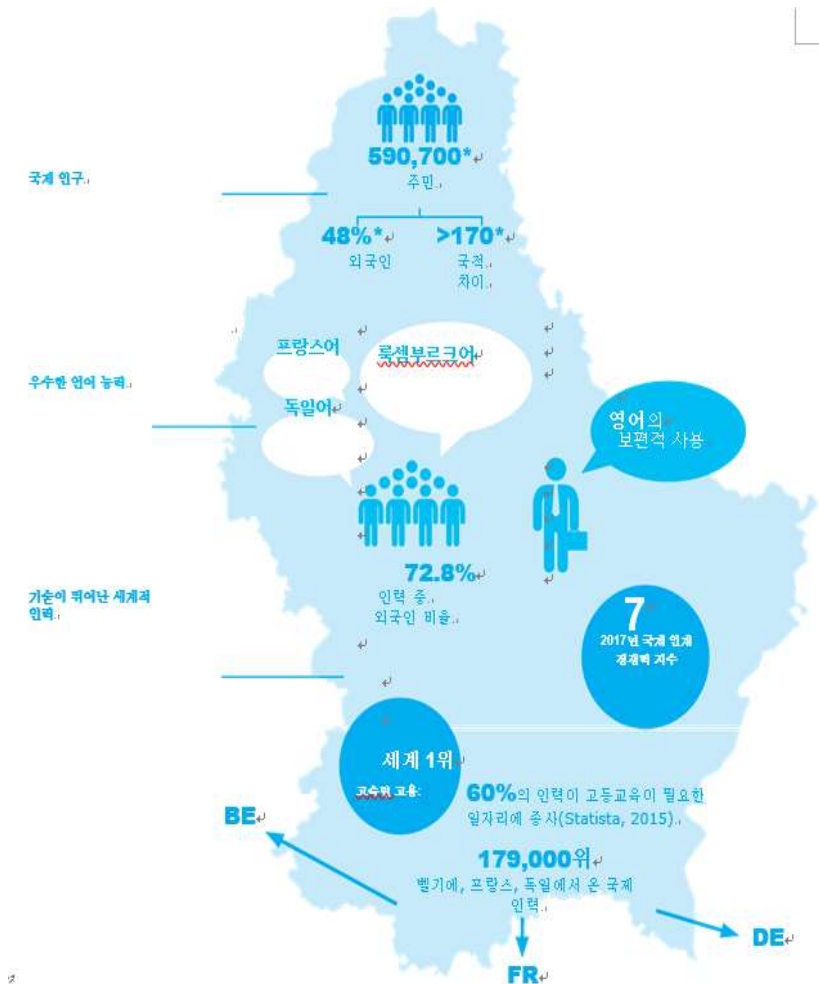
4. 매력적인 근무 환경(Attractive work environment)

룩셈부르크에는 수많은 매력적인 취업 기회 및 경쟁력 있는 급여를 제공하는 역동적인 노동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 유럽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국가이자 국제적인 커리어를 쌓기에 이상적인 장소이다. 룩셈부르크는 안정적인 경제, 안전한 일자리 및 건전한 일과 삶의 균형을 제공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커리어를 쌓기 좋은 국가 세계 1위

출처: 2016 국외 근로자 대상 설문조사(Expatriate Insider Working Abroad Index 2016)

5. 숙련되고 재능 있는 다국어 가능 인력 (Skilled and talented multilingual work force)



지식 경제 국가인 룩셈부르크에는 우수한 인력이 준비되어 있고, 이웃 국가들로부터 최고의 인재가 모여든다. 다국어 가능 인력들은 3~4개 언어를 기본으로 구사한다. 따라서 룩셈부르크에서는 고객과 자국의 언어로 소통하고 이들의 필요를 쉽게 이해하는 인력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룩셈부르크에는 유럽연합 외부의 자격을 갖춘 인력이 취업 허가를 간단히 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6. 우수한 디지털 인프라(Outstanding digital infrastructure)

-데이터 중심적 경제

룩셈부르크의 인프라와 법적 프레임워크는 데이터 처리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유럽 지침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 방대한 데이터를 저장, 처리 및 쿼리할 수 있는 고도로 안전한 "디지털 대사관(Digital embassy)" 역할을 한다.

-유럽 HPC 센터

고성능 컴퓨팅(HPC)이 전 세계적으로 산업과 디지털 사업에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룩셈부르크는 HPC 및 빅데이터 지원 분야와 관련하여 범유럽 프로젝트를 선도하고 있으며, 기업의 요구에 발맞추고자 초당 1페타플롭을 처리할 수 있는 HPC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7. 유럽의 물류 허브(Your Logistics hub in Europe)



룩셈부르크는 유럽의 중심에 위치하였으며, 항공, 도로, 철도, 수로 인프라가 잘 되어 있어서 경쟁력 있는 대륙간 물류 허브 역할이 가능하다. 룩셈부르크는 유럽 내 대륙간 물류 허브로서 항공 및 철도 화물 물류 활동을 중심으로 입지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베네룩스(Benelux)에 최첨단 복합 허브를 설치했다.

8. 투자, R&D 및 혁신 인센티브

(Investment and R&D and Innovation incentives)

세계 최고의 국제 금융 중심지 중 하나로서 룩셈부르크는 사모 펀드 투자를 구성하기 위한 금융 수단은 물론이고, 민간 재원에 대한 접근성이 뛰어나다. 룩셈부르크는 유럽에서는 1위, 전 세계적으로는 미국의 뒤를 잇는 2위 투자 중심지로서 헤지 펀드, 사모 펀드, 벤처 캐피털, 부동산 등의 대체 자산 클래스 및 투자 전략에 맞춘 구조 설계에 특화된 전문성을 축적한다. 또한, 기업은 활동을 확장하고 혁신적 콘셉트와 제품을 개발하고, 전반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유리한 공공 기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9. 포용성 및 다문화(Inclusive and Multicultural)

룩셈부르크는 더욱 사회적으로 포용적인 경제적 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적 메

커니즘을 도입했다. 이는 곧 개방적이고 평등한 사회로 이어지며, 외국인을 환영하고 편안하게 해 주는 오랜 전통으로 이러한 흐름이 가속화 될 것이다.

10. 안전하고 삶의 질이 높은 곳(Safe with a high quality of life)

1위

외국인에게 안전한 국가

출처: [InterNations survey](#)

세계 1위

보건 의료 부문

출처: [The Legatum Prosperity Index, 2016](#)

룩셈부르크는 유럽에서 커리어를 쌓기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삶을 즐기고 가족을 꾸리기에도 손색이 없는 국가이다. 게다가 유럽의 매력적인 수도가 대부분 근접해 있어 여행에도 이상적인 국가이다. 룩셈부르크는 오랫동안 유럽에서 아는 사람만 아는 명소였지만, 이제는 사업, 라이프 스타일, 가족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곳으로 알려지고 있다.

-1위 외국인에게 안전한 국가

출처: 인터네이션 조사(InterNations survey)



룩셈부르크 정부 산하 혁신 기관 룩스이노베이션(Luxinnovation)이 발간한 '룩셈부르크를 선택해야 하는 10가지 이유(Ten Good Reasons to choose Luxembourg)' 영문 브로셔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다.

Read More

The economic diversification of Luxembourg

룩셈부르크의 경제 다각화



캐나다 신용평가사 도미니언본드레이팅서비스(DBRS)는 룩셈부르크의 지속되는 경제 다각화가 룩셈부르크의 유리한 점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룩셈부르크는 고도로 숙련된 인력, 경쟁력 있는 세금 및 법률 구조, 정치적 안정에 힘입은 탄력성과 매력을 모두 갖추고 있다. 룩셈부르크에서는 금융 부문이 총 부가가치(GVA)의 24%를 차지하면서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경제 다각화를 보이고 있지만, 금융 부문에서 다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경제를 다각화하려는 정책 노력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룩셈부르크의 5가지 핵심 산업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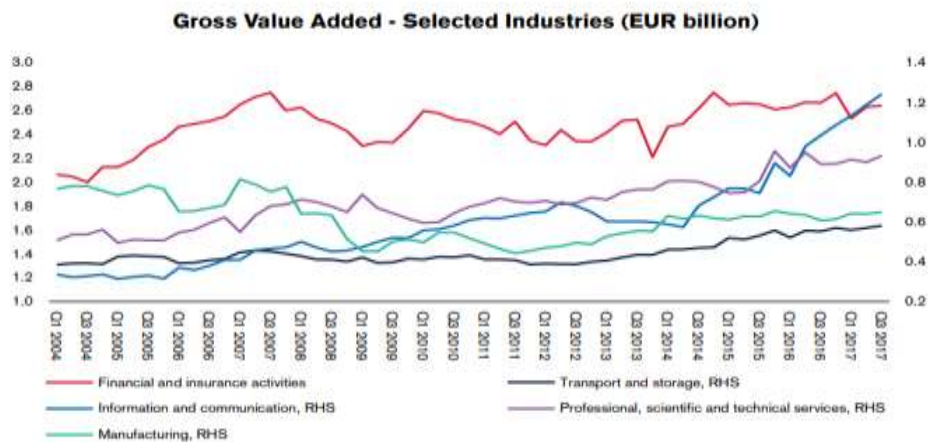
룩셈부르크는 정부는 2004년에 경제 다각화 정책을 시작하고, 다음과 같은 5가지 주요 우선 순위 사업 부문을 지정했다.

- 정보 통신 기술(ICT)
- 물류(Logistics)
- 우주(The space industry)
- 생명 공학(Biotechnology)
- 환경 기술(Eco-technologies)

이러한 분야에 대한 투자는 룩셈부르크가 강력한 기술 인프라를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었고, 룩셈부르크가 디지털 사용 능력에 대한 유럽의 선두 국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밑받침이 되었다. 룩셈부르크는 우주 산업 분야에서 우주에서의 활동이 활발한 전세계 10위권의 국가이다.

DBRS views the ongoing diversification of Luxembourg's small economy as favourable.

Luxembourg remains both highly resilient and attractive as an investment destination, supported by its highly skilled workforce, competitive tax and legal frameworks and political stability. Although the country has a relatively limited degree of economic diversification, with the financial sector accounting for 24% of gross value added (GVA), policy efforts to diversify the economy away from the financial sector to other high value-added industries continue to advance.



Source: Service Central de la Statistique et des Etudes Economiques (STATEC), Haver Analytics.

°Five key priority business sectors

The government began its policy of economic diversification in 2004, identifying five key priority sectors: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T),
- Logistics,
- The space industry,
- Biotechnology and
- Eco-technologies.

Investment in these areas helped Luxembourg develop a strong technological infrastructure. The country is the European leader in digital skills. In the satellite industry, Luxembourg is among the top ten countries in the world with an active space presence.

Read More

Luxembourg ranks as the 2nd Green finance Centre in the world

룩셈부르크, 전세계 2위 녹색 금융 센터



지난 3월 발표된 글로벌 녹색 금융 지수(Global Green Finance Index, GGFI) 조사에 따르면, 룩셈부르크는 녹색 금융 투자 부문 전세계 2위를 차지했다.

녹색금융이란 녹색성장을 위한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녹색금융상품을 통한 환경개선 및 신금융상품 개발, 리스크 관리기법 개선 등으로 인한 금융산업 발전까지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금융형태이다.

Financial services are an essential component of a sustainable economy, which meets the needs of stakeholders, enhances quality of life, protects the environment and addresses global issues such as climate change. The Global Green Finance Index (GGFI), published on 14 March 2018 ranks the world's financial centres according to perceptions of the quality and depth of their green finance offerings. Thereby GGFI seeks to encourage financial centres to become greener and develop financial services in a way that enables society to live within planetary boundaries. The index gives a measure of how financial centres are responding to this challenge.

According to the GGFI first edition, the Grand Duchy ranks 2nd in Green Finance Penetration. The GGFI specifically mentions the Luxembourg Green Exchange, which was launched in 2016, citing it as a key element in Luxembourg's ranking and acknowledging it for quality and depth of its green finance offerings.

[Read More](#)

OCSiAI held a conference 'Innovative SWCNT from laboratory to industry' on April

룩셈부르크 기반 단일벽탄소나노튜브 생산기업 옥시알아시아퍼시픽, 컨퍼런스 및 전시회 개최



(‘혁신적 단일벽탄소나노튜브: 실험실에서부터 산업체까지’ 행사 포스터)



(발표 중인 옥시알아시아퍼시픽 빅토르 김 대표)



(행사에 전시된 옥시알의 제품들)

룩셈부르크에 본사를 둔 단일벽탄소나노튜브 세계 최대 생산기업 옥시알아시아퍼시픽(OCSiAl)은 지난 4월 13일 대전에서 '혁신적 단일벽탄소나노튜브: 실험실에서부터 산업체까지'라는 주제의 컨퍼런스 및 전시회를 개최했다.

옥시알아시아퍼시픽 빅토르 김(Victor Kim) 대표의 축사에 이어 옥시알아시아퍼시픽 및 한국 국책 연구원들이 학문적 연구 성과를 발표했고, 각 기업 참석자들 또한 단일벽탄소나노튜브를 활용한 제품의 비교 우위 등에 발표했다.

°발표자/연구기관/기업명순

-빅토르 김, 옥시알아시아퍼시픽

(Viktor Kim, CEO, OCSiAl Asia Pacific)

-알렉산더 베즈로드니, 옥시알 R&D 센터

(Dr. Alexander Bezrodny, R&D Director, International Scientific Center on Termophysics and Energetics)

-구본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복합소재기술연구소

(Dr. Boncheol Ku, Principal Researcher,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권한상, 넥스트 제너레이션 머티리얼스

(Dr. Hansang Kwon, CEO, Next Generation Materials Co., Ltd.)

-세르게이 추핀, 옥시알아시아퍼시픽

(Sergey Chupin, R&D manager, OCSiAl Asia Pacific)

-올레그 보브레노크, 옥시알 R&D 센터

(Dr. Oleg Bobrenok, Leading Researcher, International Scientific Center on Termophysics and Energetics)

-한중탁, 나노융합기술연구센터, 한국전기연구원

(Dr. Joong Tark Han, Principal Researcher, Professor, Korea Electro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김영섭, 옥시알아시아퍼시픽

(Youngsup Kim, Commercial Director, OCSiAl Asia Pacific)

-박동일, 서현테크켄

(Dongil Park, President, Seohyun Tech Chem Co., Ltd.)

-안드레이 세냐트, 옥시알에너지

(Andrey Senyut, CEO, OCSiAl Energy)

-장 니콜라스 헬트, 옥시알그룹

(Jean Nicolas-Helt, Development and Support Leader for Elastomers, OCSiAl Group)

-김재관, 옥시알아시아퍼시픽

(Jaekwan Kim, Sales Manager, OCSiAl Asia Pacific)

-블라디미르 크라브첸코, 옥시알 그룹

(Vladimir Kravchenko, Project Leader, OCSiAl Group)

컨퍼런스는 아래와 같은 주제로 진행되었다.

세션 1: 실험실에서 산업체까지(SWCNT 2.0 – FROM LABORATORY TO INDUSTRY)

세션 2: 튜발 활용- 코팅, 라텍스 및 리튬이온 배터리 (TUBALL™ APPLICATIONS – COATINGS, LATEXES AND LI-ION BATTERIES)

세션 3: 튜발 활용- 탄성체 및 고성능 구성 요소

(TUBALL™ APPLICATIONS – NEW GENERATION ELASTOMERS AND HIGH-PERFORMANCE COMPOSITES)

옥시알아시아퍼시픽은 2017년 7월 룩셈부르크 경제부 및 재무부와 단일벽탄소나노튜브 생산 공장 건설을 위해 상호 협력 양해 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Read More](#)

Luxembourg Trade & Investment Office-Seoul participated in the Startup Seminar held by Hanwha Dreamplus 63 as a Speaker

주한 룩셈부르크 대표부, 한화 드림플러스 63 '스타트업 해외 진출 세미나' 스피커로 참가



(룩셈부르크 진출시 이점에 대해 발표 중인 주한룩셈부르크대표부 김아름 무역투자담당관)



(룩셈부르크에 대해 발표 중인 지속가능발전소 윤덕찬 소장)

주한룩셈부르크대표부는 한화 계열 핀테크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인 한화 드림플러스 63과 함께 지난 4월 26일 해외 진출 희망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스타트업 해외 진출 세미나'를 진행했다.

해외 진출 희망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열린 이 세미나는 홍콩 투자청, 주한 룩셈부르크 대표부, 넥스펜더(일본 진출 지원 기관)와 함께 국가별 진출 정보 및 실제 진출 기업의 경험담을 공유했다. 세미나 이후에는 참여 기관과 스타트업의 면담의 시간을 갖는 멘토링 세션으로 이루어졌다.

주한룩셈부르크대표부 김아름 무역 투자 담당관은 '왜 룩셈부르크인가?(Why Luxembourg)'라는 주제로 룩셈부르크를 통한 유럽 진출의 이점에 대해 설명했다. 지리적 이점, 건전한 경제가 룩셈부르크를 통해 유럽에 진출하려는 스타트업에 있어 안정적 사업 구상을 가능하게 하며, 스타트업 지원 기관과 펀드 등이 진출 스타트업의 사업 기반을 닦을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이점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진출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 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스타트업 행사들도 안내되었다.

한편,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한화생명 드림플러스63은 2016년 10월에 개소한 보험업계 유일의 한화생명의 핀테크지원센터이며, 사무공간 제공 외에도 해외사업지원프로그램인 GEP(Global Expansion Program)를 통해 해외진출을 원하는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Read More](#)

Kuehne+Nagel further strengthens its European overland pharma network

퀴네앤드나겔, 유럽 육상 의약품 네트워크 강화



KUEHNE+NAGEL

제약 및 의료산업에 대한 물류 해결책은 퀴네앤드나겔(Kuehne+Nagel)의 중요한 성장 동력이다. 퀴네앤드나겔은 룩셈부르크 콘테른(Contern) 지역의 크로스 독 플랫폼의 확장과 텔레매틱스 데이터의 통합으로 제약 솔루션에 대한 퀴네앤드나겔의 유럽 시장에 대한 입지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Logistics solutions for the pharma and healthcare industry are among the most important growth drivers for Kuehne + Nagel's European overland business. With the extension of the European overland cross dock platform in Contern and the integration of telematics data of key providers

Kuehne + Nagel strengthens its position in the European market for pharma solutions.

Uwe Hött, Senior Vice President Overland Europe at Kuehne + Nagel, said: "Industry specific services for customers from the pharma & healthcare industry mark a key factor of Kuehne + Nagel's success story in overland business. The investment into our Luxembourg pharma platform and the integration of telematics data of qualified key transport partners contribute significantly towards our overall strategy for the pharma industry with a special focus on temperature controlled transportation for both FTL and LTL. The extension of the Contern facility will enhance providing industry leading services with increased capacity for our customers."

The platform in Contern is part of Kuehne + Nagel's KN PharmaChain. KN PharmaChain is a multi-modal logistics solution for temperaturecontrolled door-to-door transportation which allows accurate traceability of the deliveries and intensive, proactive risk management.

The facility offers a complete coverage to all European destinations with competitive lead times and an industry leading GDP certified infrastructure. The new platform increases the capacity for loading and unloading pharmaceutical products under temperature controlled warehousing conditions and in a completely closed environment. The GDP certified cross dock is divided into a zone of 2°-8°C and one of 15-25°C with 4.000 square metres dedicated for the pharma sector. Furthermore the platform has several features that guarantee the best environment for the handling of pharmaceutical products like:

cool rooms and flooring enhancing the quality of pharma handling
cooling and heating systems independent of electricity running on redundant cooling machines
24/7/365 warehouse temperature monitoring linked to an external surveillance center
computer validated temperature monitoring and warning systems, own dedicated secured and guarded truck parking area nearby the warehouse fully CCTV and access controlled area.

With an increasing number of state of the art bi-thermo temperature controlled trailers, either own assets or operated by qualified partners,

Kuehne + Nagel aims at seamless services for temperature controlled FTL and LTL shipments across Europe. The integration of telematics data of key transport partners into Kuehne + Nagel's platform KN Login marks another step towards full visibility to pharma customers.

[**Read More**](#)

Cargolux adds Narita Tokyo to its network

카고룩스, 도쿄 나리타 노선 신규 운항



룩셈부르크 화물항공사 카고룩스(Cargolux)는 도쿄 나리타(Narita) 노선을 추가하고, 주 1회 화물기를 운항한다. 카고룩스는 일본화물항공(NCA)가 운항하는 프랑크푸르트-나리타, 일본화물항공은 카고룩스의 룩셈부르크-나리타 노선에 대해 편명 공유를 한다.

Cargolux inaugurated a new weekly flight from Luxembourg Airport, to Narita International Airport in Japan in the scope of a cooperation agreement with Nippon Cargo Airlines (NCA) for code-share cargo flights between Luxembourg and Tokyo. Cargolux's Boeing 747-8 freighter, registered LX-VCM, was warmly welcomed with the traditional water cannon salute upon arrival on Wednesday, followed by celebration events at Narita airport. During the ceremony, Richard Forson, Chief Executive Office of Cargolux,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Japan in Cargolux's network "Japan has long played an important role in Cargolux's Far East network and we are looking forward to supporting Japan's trade lanes to and from Europe".

The Cargolux weekly flight to Narita leaves Luxembourg every Tuesday evening, arriving in NRT on Wednesday afternoon at 16:25. The return flight is routed via Incheon and Novosibirsk. It arrives in Luxembourg on Thursday 06:15 (all local times). As the Cargolux and NCA flights are operated on different days of the week, this arrangement gives additional market opportunities for both airlines on the Europe-Narita sector while at the same time promoting competition between the partner airlines.

More than 2 million tons of air cargo volume is handled at Narita Airport each year, which accounts for more than 50 percent of international air cargo in Japan. The major import items are prestige cars, communications equipment, pharmaceuticals and semiconductors and electronic components. Major export items include automobile parts, semiconductors, electronic components and other manufacturing devices, as well as scientific optical equipment.

Cargolux started operating flights to Japan in 1985, and has been serving Japanese exporters and importers ever since. Prior to the October 2017 negotiations, Cargolux and Nippon Cargo Airlines had already agreed to strengthen cooperation in certain areas through a code-share and space-swap agreement granting access to each other's capacity on certain flights from Europe to Japan.

Read More

A brownfield reconverted into a temple of knowledge In Luxembourg

지식의 전당으로 탈바꿈한 룩셈부르크 벨발(Belval) 지역



룩셈부르크 벨발(Belval) 지역이 탈바꿈하고 있다.

벨발 지역은 한 때 유럽 철강회사 아르셀로미탈 공장이 자리했던 곳으로, 지금은 룩셈부르크 연구개발의 대표적인 장소 중 한 곳이 되었다. 룩셈부르크 대학교의 캠퍼스도 얼마전 철강 지역이었던 벨발 지역으로 이전했다. 룩셈부르크는 실제로 벨발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9억 5000만유로를 투자했다. 룩셈부르크의 아이디어는 이 지역을 유럽의 중심부에 있는 실리콘 벨리처럼 만드는 것이며, 이는 룩셈부르크가 작지만 야망을 가진 나라라는 것을 보여준다.

The young University of Luxembourg has just moved to Belval, on a former steel site. A futuristic and "American" campus that aims for academic excellence but which still lacks notoriety.

From his office perched on the eighteenth floor of the Maison du Savoir (House of Knowledge) the young rector of the University of Luxembourg has an unobstructed view of his establishment. Stéphane Pallage, arrived at his post two months ago and is still amazed by the landscape offered by this unique campus. What makes this place so unique is that it was built on a huge industrial wasteland of 120 hectares, the memory of which has remained alive.

Chimneys that are several meters tall, cathedral-like blast furnaces, railway tracks and warehouses have all been integrated into the layout of the campus. These remains of the old ArcelorMittal steelworks alongside the ultramodern buildings of the university boast futuristic names: House of Numbers, House of the Books, House of Innovation...

Knowledge at the foot of the foundry

The old world is making way for the new. "It is a very strong symbol," admits Stéphane Pallage, a Belgian economist who has spent most of his career at the Université du Québec à Montréal (UQAM). "And all this is just the beginning," he continues, pointing to the cranes and sites under

construction. "Because if the University of Luxembourg (Uni.Lu) started to settle on this campus at the end of 2015, its development is still far from being completed."

"Luxembourg has invested 950 million euros to develop Belval"

Built on the skeleton of an old industrial hall, the library is scheduled to open in October 2018. A large gilded polygon will become the House of Arts, which will soon be operational with a room of 400 seats. A building for engineers to conduct experiments is under construction, as well as an infirmary and additional housing for researchers and students.

Belval, the name given to this "city of sciences" located less than a kilometre from the French border, has great ambitions. It embodies the country's desire not to rely solely on its financial strength, but also on that of knowledge and innovation. The site should also pave the way for revitalisation in this area that was devastated by the end of the steel industry, and it will serve to help decongest the capital, 20 kilometres north. (See also "From mines to "smart city": how a Lorraine territory is being reconverted)

For all of this to happen, Luxembourg has put up the means: the country has invested 950 million euros to develop Belval, which also hosts research centres, start-ups and companies.

"The idea is to make Belval a kind of Silicon Valley in the heart of Europe," says the rector. It is a little daring, but Luxembourg is a small country that has big ambitions."

Target international students

Back in 2003 however, when the Grand Duchy had finally decided to create a university – the only one in the country and the youngest in Western Europe – all this was not so obvious. A large part of the political class, in particular Prime Minister Jean-Claude Juncker, now President of the European Commission, was sceptical.

"The country was experiencing tremendous economic development. Leaders did not see the value of spending huge sums of money to fund research," recalls Rolf Tarrach, the Spanish physicist who headed the University of Luxembourg for ten years and now chairs the European University Association. Above all, in a country so small (580,000 inhabitants), was it not vital that students continue to study elsewhere before returning to the country? "I told Juncker that we did not do a university for Luxembourgers, but for the country. That it was great if the young people from here continued to study abroad," recalls Rolf Tarrach.

The idea was to feed the economy with new blood and therefore to target international students first and foremost. For this, the establishment has assets: tuition fees of 400 euros per year, doctoral students paid net 2,100 euros per month, bilingual or trilingual courses, a brand new campus, and courses in small groups, good prospects of integration in a labour market open to

foreigners...and the result? Today, 55% of its 6,200 students are foreigners.

However, even with 113 nationalities on its campus, this very young European university suffers from a deficit of notoriety. "Its ability to attract good students is yet to be demonstrated," says Judge Pierre Mutzenhardt, president of the nearby University of Lorraine. "This is not a very attractive place from the international perspective. If Singapore, which is sometimes compared to Luxembourg, attracts the best bachelor students in Asia, those of Europe are not yet racing to the University of Luxembourg. This did not create a new stream."

Moderate tuition

When he was in S terminale Thionville (Moselle), a few kilometres from Luxembourg, Alexis, 18, realised that few of his acquaintances had heard of this establishment. He knew it because his parents work in the Grand Duchy and he had passed several times in front of the Belval campus. He hesitated a little with a private computer school in Metz, but was eventually seduced by the modern infrastructure of the Uni. Lu, the English courses, the university surety and the moderate tuition fees: "Having a university like that a few miles from home and not enjoying it would have been a pity."

Today, studying for his bachelor of computer science, the young man says he is delighted: "We have teachers from around the world. And we have a room just for our training, where we can work and settle when we want." Next year, like all undergraduates, he will be doing a semester at a foreign university. On the other hand, he recognises that the campus does not shine via its extracurricular activities. Students are also little associated with the governance of the institution, even if it will change, says the rector.

In short, student life remains to be built into Belval.

It is the same with the academic culture. This is a major challenge while the institution assembles researchers from all backgrounds. The course that has been laid out since the creation of the university is clear and pragmatic: increase the number of publications in prestigious journals, attract the best foreign researchers and doctoral students and climb in the rankings. These international rankings are very popular.

€ 766 million from the State of Luxembourg

To stand out in this competition, the University of Luxembourg has decided to focus its efforts on a handful of fields related to the country's economy: IT, cyber-security, data modelling, biomedical, health, law, finance and education. But it has not won yet. "We are 11th in the World University Rankings of Times Higher Education 2017," says Stéphane Pallage. This is already exceptional, but we must be able to reach the level of EPFL ", the Ecole Polytechnique Federal de Lausanne, which ranks first in this ranking of universities under 50 years.

To implement this strategy, the rector has substantial resources: for the next four-year plan, which the university has just signed, the school will receive 766 million euros from the State of Luxembourg, 30% more than in the last contract. As the only university in the country, Belval gets all the "favours" of the Ministry of Higher Education of the Grand Duchy, as well as the National Fund for Research. This striking force allows the rector to attract some "stars", such as sociologist Louis Chauvel, former pillar of Sciences Po, in Paris. In total, the University has 260 permanent teachers-researchers, plus a battalion of 430 post-docs and an army of 640 doctoral students.

It is this environment that has attracted Jacques Klein, a French computer scientist working for Inria, the French public research body dedicated to digital science and technology.

"The conditions for doing research are very good. The university has no problem to finance travel for congresses," says the researcher of 38, hired with a salary somewhere in the order of double what is offered to a lecturer in France.

Freedom in research

Despite these good conditions, the research system remains "young", according to the judgement of the president of the University of Lorraine, Pierre Mutzenhardt: "If the Luxembourg university is beginning to be recognised in certain fields, such as materials or computer science, it does not yet host a major infrastructure for research. In addition, the link with teaching has yet to be created.

"Before this unknown university finds its place in Europe, it will have to make itself one in Luxembourg, where a part of the population still doubts its interest."

Nevertheless, this youth can be a force. This is what seduced Elise Poillot, law professor at Belval and former lecturer at Lyon-III. According to her, the University of Luxembourg offers teachers a certain freedom, with considerable resources, far from the mandarinate: "There is no tradition, no pre-established system. Everything is to be invented."

The teacher was able to create a "law clinic" to deal with real cases with her students. She also appreciates the "very international" character of the teams and students, of whom she knows "all the first names" and who are "not stunned by a system of mass education".

However, before this unknown university finds its place in Europe, it will be necessary for it to establish a firm one in Luxembourg, where a part of the population still doubts its interest.

"The university does not really position itself as a place of public debate. It is a bit like a foreign body," says a former professor of history of the Grand Duchy. Marked "by a liberal Anglo-Saxon thought, it has no critical role vis-à-vis the politics, economy or society of Luxembourg," he regrets.

No wonder for a university that looks above all else...

[Read More](#)

Marc Serres is the first Vice-Chairman of the ESA Council from Luxembourg

마크 세레스, 유럽우주국위원회 부의장(Vice Chairman)으로 임명



룩셈부르크 경제부 우주 담당 국장 마크 세레스(Marc Serres)가 룩셈부르크인 출신 최초로 유럽 우주국위원회(ESA Council)의 부의장(Vice Chairman)이 되었다.

마크 세레스는 2019년 6월 30일까지 유럽우주협회의 현 의장 권한 대행으로 임명됐다. 그는 폴란드 개발부의 오틀리아 트라자스칼스트로인스카(Mrs. Otylia Trzaskalska-Stroińska)의 후임으로 일한다.

유럽우주국위원회는 유럽 우주국(European Space Agency)의 주관 기구로, 각료 또는 대표단 차원의 회원국들을 대표한다. 위원회는 22개의 회원국으로 구성되어있다.

Marc Serres, Head of Space Affairs at the Ministry of the Economy, is the first Vice-Chairman of the ESA Council from Luxembourg

Head of Space Affairs at the Ministry of the Economy, Marc Serres, has been appointed Vice-Chairman of the ESA Council for the remaining mandate of the current chairship until 30 June 2019. As the first Vice-Chairman of the ESA Council from Luxembourg, he replaces Mrs. Otylia Trzaskalska-Stroińska, Deputy Director, Innovation Department at the Ministry of the Development of the Republic of Poland after her resignation. Marc Serres, Head of Space Affairs at the Ministry

of the Economy, is the first Vice-Chairman of the ESA Council from Luxembourg

Head of Space Affairs at the Ministry of the Economy, Marc Serres, has been appointed Vice-Chairman of the ESA Council for the remaining mandate of the current chairship until 30 June 2019. As the first Vice-Chairman of the ESA Council from Luxembourg, he replaces Mrs. Otylia Trzaskalska-Stroińska, Deputy Director, Innovation Department at the Ministry of the Development of the Republic of Poland after her resignation.

Marc Serres graduated with a PhD in Engineering in 2000 at the Catholic University of Louvain. He started his professional carrier in the satellite communications antenna manufacturing industry. Prior to his current position at the Ministry of the Economy, he managed the relationship with ESA for 8 years at the Ministry of Higher Education and Research.

The ESA Council is the main governing body of the European Space Agency, representing the Member States either at Ministerial or delegate Level. The Council defines the basic policy guidelines and determines the directions of development of the European Space Agency and the European space industry. At present the agency has 22 member states.

Luxembourg officially became a member state of ESA in 2005. At the preceding step to position the country in the space sector, Luxembourg entered into space in 1985 through the creation of the Société Européenne des Satellites (SES). The last step taken by the Luxembourg government has been to position the country as a pioneer in the development of the space resources economy under the branding SpaceResources.lu. Luxembourg collaborates with ESA on activities concerning missions to the asteroids, related technologies and space resources exploration and utilization

[Read More](#)

OTHERS

Biking in Luxembourg video

바이커들의 천국, 룩셈부르크



전세계 바이커들에게 룩셈부르크에 보존되어 있는 700km 길이의 산악 자전거 트랙은 천국과 같은 곳이다. 다양한 풍경과 숨막힐 듯한 자연을 배경으로 한 룩셈부르크의 자전거 트랙들은, 바이커들이 룩셈부르크의 또 다른 방법으로 룩셈부르크의 숨겨진 매력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룩셈부르크에서의 자전거 대여는 어디서나 손쉽다. 또한 혼자가 아니더라도, 가이드를 동반한 산악 자전거 투어를 이용하여 바이킹을 즐길 수도 있다. 전문 바이커라면 룩셈부르크 에히트나흐 (Echternach)에서 매년 봄에 열리는 100, 70, 40km 경주에도 참여해볼 수 있다.

아래 링크의 영상을 통해 바이커들의 천국, 룩셈부르크의 바이킹 트랙의 매력을 확인해볼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0TQ1M-TaDBk>

With a network of mountain bike tracks covering more than 700 km, set in a varied landscapes and a breathtaking nature, Luxembourg is a true paradise for mountain bikers. Whether you are a confirmed rider or a beginner, whether you come with your family, as a tourist or with sporting ambitions, you will have a wide choice of trails with climbs, descents and challenges adapted to your specific desires and skills.

The tracks take you through woods, forests, mountains and valleys, along lakes, impressive rock formations and historic sites, giving you the opportunity to discover the country in a different way all whilst embarking on unforgettable adventures. Well kept and meticulously signalled, the Grand Duchy's mountain bike trails offer thrills and spectacular views all year round.

Should you need to rent a bike, that's no problem either: bike rentals are readily available all over. You may also be tempted to include one of the many thematic or guided mountain bike tours offered. Or, if you're more of a competitive rider, why not take part in the Mill Man Trail in Echternach, a 100-, 70- and 40-km race that takes place every year in the spring.

Luxembourg holds ICT SPRING EUROPE 2018

룩셈부르크 ICT SPRING EUROPE 2018 행사 열려



오는 5월 15일, 16일 양일간 유럽 ICT 산업의 중심 룩셈부르크에서 'ICT Spring Europe 2018'

산업 박람회가 개최된다. 올해로 9회째인 'ICT Spring Europe'은 디지털 혁신을 모토로 매년 전세계 ICT 기업 및 전문가들이 새로운 정보와 신기술을 공유하는 교류의 장이다.

올해는 핀테크(FinTech), 디지털(Digitalisation), 우주(Space)의 3가지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박람회 부대행사로 미항공우주국(NASA)을 비롯 주요 기관들이 참석하는 SPACE FORUM(항공우주포럼)과, 사업 발표를 통해 선발된 유망 스타트업에 10만 유로의 상금이 주어지는 스타트업 경연대회 Pitch Your Startup이 열릴 예정이다. 한국에서는 3개 기업이 본 박람회에 참가한다.

[Read More](#)

FinTech Awards Luxembourg on June 20th

핀테크 스타트업 행사, FinTech Awards Luxembourg



핀테크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열리는 핀테크 어워즈 룩셈부르크(FinTech Awards Luxembourg)가 6월 20일 룩셈부르크에서 개최된다. 핀테크 어워즈 룩셈부르크는 핀테크 스타트업들을 위한 경연대회로 룩셈부르크 금융 산업 관계자들 및 경영진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의 기회를 제공한다.

온라인 지원 마감 일자는 5월 1일로 마감되었으며, 1차 지원을 통해 선정된 15개의 스타트업은 6월 20일 본선 당일 올해의 핀테크 스타트업으로 겨루게 된다.

FinTech Awards Luxembourg 홈페이지:

<https://www.fintechawards.lu/>

[Read More](#)

ArtsKoCo Gallery Luxembourg invites Artist, Lan Lee

이안 리 작가 초대, 룩셈부르크 아르코코 갤러리



룩셈부르크 아르코코 갤러리에서는 한국의 서양화가 이안 리 작가를 초대 개관기념전을 갖는다. 이번, 개관 기념전에는 붓 대신 손과 팔 신체를 이용하여 그리는 서양화가 이안 리를 초대하여 오는 5월 2일부터~5월 31일까지 한달 간 기념전을 가질 예정이다.

출처: 국제뉴스 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16768

University of Luxembourg International Summer School

룩셈부르크 대학교, 국제하계대학수업 열어



룩셈부르크대학교는 오는 6월 25일부터 7월 13일까지 약 3주동안 국제하계대학수업을 진행한다. 국제하계대학수업은 불어와 영어 수업을 포함한 언어학습코스, 룩셈부르크, 프랑스, 독일 수업 등 여러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있다. 수업 참가자들은 수업 이수 후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참가 신청은 아래 룩셈부르크대학교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https://uliss.uni.lu/>

The University of Luxembourg invites you to Decode Europe and follow the traces of its Past during an International Summer School.

The summer school will give you the opportunity to broaden your field of expertise and discover new horizons by combining academic lectures, expert interventions on site, as well as "hands on workshops" during specific field trips. The idea is to show that the history of Europe is not one-dimensional but built on the confrontation of multiple narratives and transnational experiences. The University of Luxembourg proposes you to join us on this journey that makes the past come alive and highlights Europe's multiplicity and to zoom in and out between micro-histories of Europe in the border regions of Luxembourg and the macro-histories of Europe as played out in an exemplary way in Berlin during the 19th and 20th centuries.

Luxembourg Trade & Investment Office, Seoul

주한 룩셈부르크 대표부

Tel. : +82 (0)2 777 2552 Fax : +82 (0)2 773 2574

E-mail: info@luxembourg.or.kr

www.investinluxembourg.kr